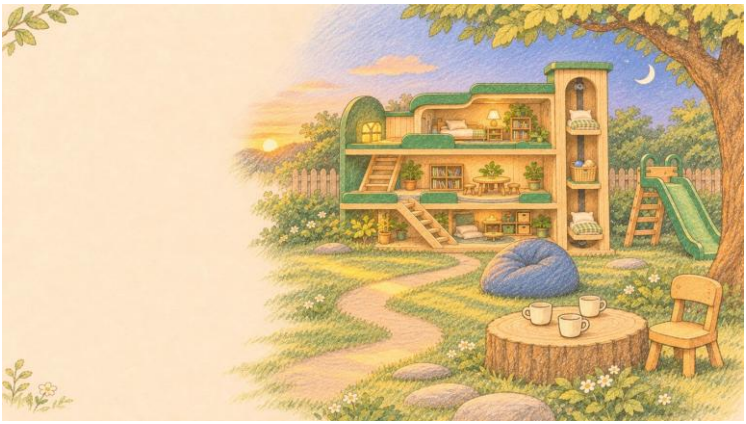
우성이와 지성이 이야기 정원

첫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

너를 기다리는 자리



그림책 v06 · 가안(v05 + 로아 여우 바로잡음) · 2026-11-14

차례

너를 기다리는 자리 7

F01 · 아직 아무도 없던 때 8

F02 · 첫 번째 자리 9

F03 · 현관 앞의 도토리 10

F04 · 길 끝의 식탁 11

F05 · 풀숲에서 온 친구들 12

F06 · 하나 남은 컵 13

F07 · 함께 먹을 빵 14

F08 · 뇨끼가 만든 그늘 15

F09 · 다 같이 보는 꽃 16

F10 · 피오의 자리 17

F11 · 처음 만난 식탁 18

F12 · 다음 친구의 의자 20

다행이다,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23

E01 · 숲으로 돌아오는 길 24

E02 · 기다리는 친구들 25

E03 · 먼저 달리는 지성이 26

E04 · 문 앞의 손님들 27

E05 · 먼저 내어 주는 자리 28

E06 · 더 넓어진 식탁 29

E07 · 쿠마타, 발 30

E08 · 숟가락 옆 조약돌 31

E09 · 눈을 바라보는 친구 32

E10 · 두두가 그린 식탁 33

E11 · 나뭇가지의 노래 34

E12 · 따뜻한 옆자리 35

E13 · 이름을 부르는 밤 36

E14 ·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37

첫 이야기

너를 기다리는 자리



F01 · 아직 아무도 없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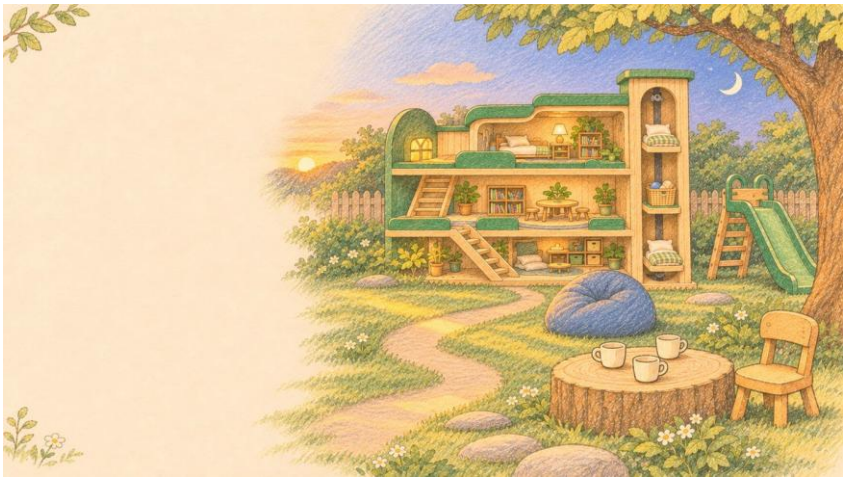
아직 아무도 없던 때였어요.

하늘도 비어 있고
땅도 비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머리카락을 날릴 아이가 없고,
아침이 와도
눈을 비비며 일어날 얼굴이 없었어요.

누군가 가만히 생각하셨어요.
“아, 사랑하고 싶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들어 줄 아이가 없었어요.



F02 · 첫 번째 자리

그래서 따뜻한 빛을 만들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나무와 풀꽃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숲 한가운데 햇볕 잘 드는 곳에
둥근 나무 식탁을 놓으셨어요.

누군가 찾아와 마주 앉기를 기다리는
첫 번째 자리였어요.



F03 · 현관 앞의 도토리

어느 맑은 아침,
연두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성아, 빨리 나와!
저기 못 보던 길이 생겼어!”

형 우성이가 운동화부터 꿰어 신고
씩씩하게 앞장섰어요.

동생 지성이는 현관 계단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형아, 잠깐만.
여기 도토리 모자 좀 봐.”

지성이는 반질반질한 도토리 모자를 주워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F04 · 길 끝의 식탁

“형아, 여기 봐.”

지성이가 우성이의 옷자락을
살며시 당겼어요.

풀밭 너머 오솔길 끝에
둥근 나무 식탁이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작은 나무 컵들이
빙 둘러 놓여 있었어요.
둘레에는 생김새가 제각각인 의자들도요.

“누가 벌써 차려 놨지?”



F05 · 풀숲에서 온 친구들

그때 풀숲 사이로
동글동글한 친구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어요.

조약돌 바구니를 든 해달,
목에 작은 나뭇잎을 붙인 초록 공룡 뇨끼,
둥근 모자를 쓴 모리,
그리고 고소한 빵 냄새를 풍기는 보리였어요.

“안녕? 너희도 이 길로 왔어?”
우성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F06 · 하나 남은 컵

우성이가 손가락을 꼽으며 세어 보았어요.
“나, 지성이, 해달, 뇨끼, 모리, 보리.”
그런데 컵이 하나 남았어요.
의자도 하나 남았어요.

해달이 남은 컵을 번쩍 들었어요.
“여기 내 아침밥을 넣으면
딱 좋겠다.”

지성이가 그 컵을 두 손으로 받아
원래 자리에 도로 올려놓았어요.
손잡이도 빈 의자 쪽으로 돌려서요.
“이건 여기.”



F07 · 함께 먹을 빵

보리가 들고 온 빵 바구니를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어요.

갓 구운 빵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다 같이 먹으려고
조금 더 구워 왔어.”

보리는 가장 예쁘게 부풀어 오른 빵을
우성이와 지성이 앞에 먼저 놓아주었어요.



F08 · 뇨끼가 만든 그늘

초록 공룡 뇨끼는
식탁 옆 풀밭에 배를 깔고 낮게 엎드렸어요.

발 옆 나뭇잎 위를 지나가던
달팽이 느루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려는 거였어요.

“고마워, 뇨끼야.
네 배 아래는 참 시원하다.”

느루가 천천히 더듬이를 움직이며
인사했어요.



F09 · 다 같이 보는 꽃

모리가 노란 들꽃 한 송이를
식탁 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건 누구 거야?”
지성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누구 한 사람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보는 거지.”

모리가 둥근 모자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F10 · 피오의 자리

작은 노란 새 피오가
식탁 가장자리에 폴짝 내려앉았어요.

“다 같이랬지? 나도 여기 있어!”

지성이가 자기 방에서
작고 보드라운 부스러기를 떼어
피오 앞에 놓아주었어요.

“피오야, 너도 같이 먹자.”



F11 · 처음 만난 식탁

아이들과 친구들은
둥근 식탁에 빙 둘러앉았어요.
해달은 결국 자기 컵에 아침밥을 담았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온 햇살이
아이들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주었어요.
빈 의자 위에는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때 바람 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와 함께 앉고 싶었단다.”



F12 · 다음 친구의 의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우성이와 지성이는 앉았던 의자를
반듯하게 밀어 넣었어요.

“다음에 올 친구도
기분 좋게 앉아야 하니까.”

지성이는 주머니에서 도토리 모자를 꺼내
빈 의자 앞 컵 옆에 놓았어요.
“여기 앉아도 돼.”

햇빛은 해가 나무 뒤로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오래된 마음인지,
아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전체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

다행이다,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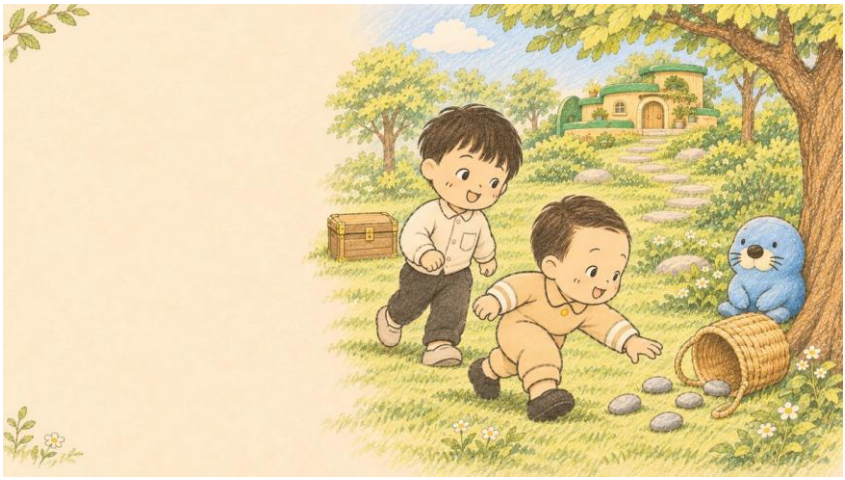


E01 · 숲으로 돌아오는 길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성이가 연두집이 있는 숲 쪽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보리랑 모리는 지금 뭐 할까?”

우성이도 그쪽을 보았어요.
저녁 바람이 풀잎을 스치며
구수한 수프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E02 · 기다리는 친구들

“우리가 늦게 오면
기다리느라 다리 아플 텐데.”

우성이가 걸음을 조금 빨리했어요.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동생 지성이가
작은 풀짚 바구니를 두 손으로 안고
종종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E03 · 먼저 달리는 지성이

이번에는 지성이가
우성이 앞을 총총 가로질러 달렸어요.

“형아, 저기 봐!
연두집 지붕이 보여!”

늘 형의 소매 끝을 잡고 따라가던 지성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렸어요.



E04 · 문 앞의 손님들

연두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형제가 길에서 만난 손님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와
문가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오소리 할머니,
비버 목수 아루,
흰 두루미 새온과 작은 물새,
여우 로아와 꼬마 동생,
그리고 소식 나르는 토끼 타루와
작은 스컹크였어요.



E05 · 먼저 내어 주는 자리

처음 숲에 왔을 때,
우성이와 지성이는
누군가가 미리 내어 준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긴 길을 다녀온 오늘,
형제는 자기들이 먼저 앉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쪽 구석 자리는
바람이 안 불어서 아주 따뜻해요.”



E06 · 더 넓어진 식탁

우성이와 지성이는
마당 구석에서 작은 나무 의자들을
하나씩 둘씩 날라 왔어요.

둥근 식탁 옆에
작은 식탁을 하나 더 이어 붙였어요.

서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도록
자리를 넉넉하게 넓혔어요.



E07 · 쿠마타, 발

보리가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지성이가 냄비 뚜껑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어요.

“쿠마타, 발.”

냄비 옆에 바짝 다가와 있던 쿠마타가
얼른 앞발을 쏙 뺐어요.
식탁 둘레에 웃음소리가 와르르 번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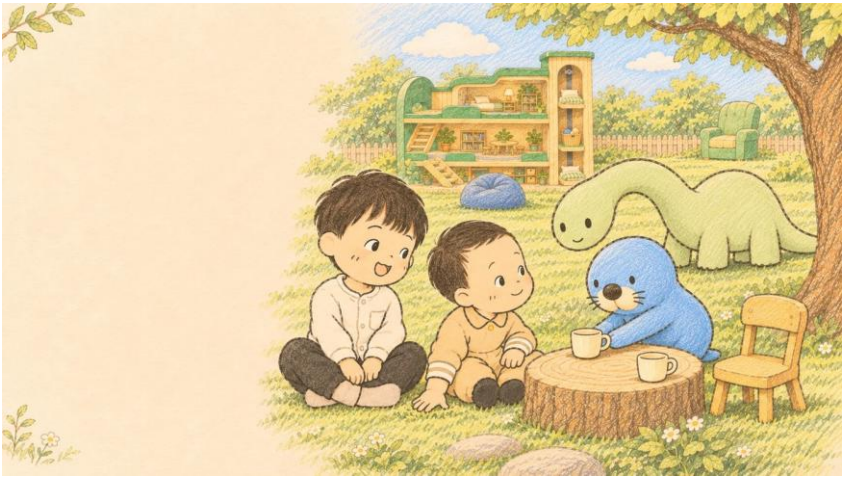


E08 · 숟가락 옆 조약돌

해달은 자기가 아끼던 조약돌들을
손님들의 접시 옆에 하나씩 놓아주었어요.

“이건 숟가락이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놓아두는 돌이야.”

모리는 밤새 땋아 둔 새 덩굴 끈으로
해달의 낡은 바구니 손잡이를
단단하게 묶어 주었어요.



E09 · 눈을 바라보는 친구

초록 공룡 뇨끼는
식탁 맨 끝 풀밭에 앉은 작은 스컹크와
달팽이 느루 옆에 나란히 엎드렸어요.

두더지 콩이는
얼굴을 가리던 커다란 지도를 접어
식탁 밑에 내려놓고
친구들의 눈을 하나씩 바라보았어요.



E10 · 두두가 그린 식탁

아기돼지 두두는
가슴 주머니에서 몽당연필을 꺼내
오늘 식탁에 모인 친구들의 얼굴을
종이 위에 하나씩 그려 넣었어요.

글자를 몰라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둥근 식탁 그림이었어요.



E11 · 나뭇가지의 노래

작은 새 피오가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여우 로아는 작은 손종을
딸랑딸랑 울렸어요.

언덕 너머에서 불어온 저녁 바람이
식탁 위의 등불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E12 · 따뜻한 옆자리

식탁 둘레에
빈자리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던 두두만
아직 서 있었어요.

“여기 앉아.”
우성이가 자기 의자에서 폴짝 내려와
의자를 두두 쪽으로 밀어 주었어요.

지성이는 어느새 풀밭에 앉아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형아, 여기는 내가 데워 놨어. 따뜻해.”



E13 · 이름을 부르는 밤

흰 두루미 새온은
잠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같이 있던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 보는 거예요.

기다란 목을 접으며, 아주 작게.
“작은 물새. 우성이. 지성이.
모리. 해달. 보리. 뇨끼……”



E14 ·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밤하늘에 둥근 달님이 떠올라
연두집 지붕과 긴 식탁을
포근히 내려다보셨어요.

처음 숲을 지으실 때부터
함께 살고 싶으셨던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아무도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책에 대하여

두 분이 보내 주신 교정본 v03(줄바꿈과 빈 줄 포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26면 가운데 19면을 고친 가안(v06)입니다. 원문은 사이트와 v03 파일에 그대로 있습니다.

첫 화의 식탁 이야기는 소설 1편과 같은 사건으로, 마지막 화의 손님은 소설 27편대로 맞추었습니다(2026-11-14 결정).

이야기 속에서는 하늘부모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햇님·달님으로 비춥니다.

그림은 지금 있는 그림을 다시 놓은 것이며, 새 원고에 맞춘 그림은 통일안에 따라 다시 그릴 예정입니다.